

○ 서울대학교 김 ○ 범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법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인간적인 감정이 맞부딪히는 생생한 현장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실제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교과서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했던 사법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증거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집중도는 책으로 배운 법이 결코 전달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증거조사가 한 시간 반 이상 이어진 재판이었다. 실물화상기를 통해 수십 건의 증거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정에서 요구되는 치밀함과 절차적 엄격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때로는 방청객에게 자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면이 작아 아쉬움도 있었지만, 판사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가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서류를 대조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절차에 몰두하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으로 다가왔다. 겉으로 보기엔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일 수 있으나,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판사의 태도와 어투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재판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어떤 재판에서는 판사가 차분히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필요성을 권유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법이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반면에 다른 사건에서는 판사의 어투가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져 당사자에게 위축감을 주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했다. 같은 법정을 경험하면서도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검사의 준비 태도 또한 눈여겨볼 만했다. 철저히 준비해 온 검사도 있었지만, 때때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어투로 빠르게 진행되는 바람에 방청석에서도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무전취식 사건에서 검사가 범정형의 상한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무거운 벌금을 구형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장면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소 유지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재판의 공정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사건 내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장동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 범죄 재판부터, 일상적인 폭행 사건이나 모욕 사건, 심지어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정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만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자 공소가 일부 취소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성의껏 준비해 대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는 변호인의 존재가 단순히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다.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최전선에서 법의 작동 방식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경험은 내게 값진 배움이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이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때로는 어떻게 도전받는지 지켜보면서, 법학도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성찰할 수 있었다.

결국 이번 봉사활동은 내게 법을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제도로 바라보게 해 주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현장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

차 법조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절차 하나하나가 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항상 의식하며, 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5년도 여름학기 소감문

○ 연세대학교 박 ○ 루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6회차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법이 사

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국내외 사법제도 헌법 관련 번역 및 조사 활동 및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필수 봉사활동으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국가의 헌법 조항을 번역하면서, 각 헌법이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과 통치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한 직역을 피하고 우리 법체계의 용어와 문장 호흡에 맞추어 표현을 다듬는 과정에서, 같은 "권리"라는 단어가 국가에 따라 작동 방식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권력분립, 기본권 제한 요건, 절차 규정처럼 한 단어의 선택이 법적 의미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용어의 등가성과 문장의 일관성을 거듭 점검하며 번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어가 정보 전달을 넘어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실무적으로 배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2020다 301308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법성·과실·인과관계와 같은 책임 성립 요건, 그리고 손해액 산정과 책임제한(과실상계·예견가능성)의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인정의 미세한 차이가 인과관계 판단과 손해 인정 폭을 달리 만들 수 있고, 그 결과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행정청 재량의 통제 기준(재량 일탈·남용)과 함께 평등원칙·비례원칙·절차적 정당성의 적용을 추적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의 사전 공개 여부와 적용의 일관성이 사법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작동하며, 자의성을 억제하는 객관적 장치가 판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필수 봉사활동으로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 평가는 단순 점수화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대 시민 소통을 촉진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번 활동 전반을 통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되, 법적 효력을 갖춘 문장은 정확성과 명료성, 그리고 용어의 일관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사실관계의 조직, 쟁점의 구조화, 판단이유를 충실히 뒷물러 결론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약이행률조사에서는 공약의 이행 정도를 객관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공적 논의를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 역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 정의 실현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 서강대학교 이 ○ 민

2023년도 겨울학기부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2024년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그리고 2025년도 봄학기를 거쳐 벌써 7학기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에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저 봉사시간을 채우고자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작은 지식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봉사를 지속할 원동력

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취감이 7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7학기 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은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판결문리서치를 할 당시에는 판결문의 형식이 낯설었고, 판결문 내의 문장이나 단어들도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한 결과, 이제는 판결문을 읽고, 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처음에 비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더 나아가 특허사건까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리서치하다보니 판결문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소송의 쟁점 파악을 용이하도록 정리하여 제공하는 일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저의 진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 동시에, 법률연맹 봉사자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정말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025년도 여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였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중에는 아직 진행 방향조차 논의되지 않은 공약들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는 선거 문화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학기 간 즐거운 마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만큼, 다음 학기에도 대학생 봉사자로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KAIST 이 ○ 승

어느덧 2025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루하거나 힘들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이 글을 쓰기 위해 그동안 되짚어보니 배우고 깨달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활동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당시를 떠올려보면, 제 마음가짐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법과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아는 부분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처음부터 확고한 사명감이나 순수한 봉사의 정신만으로 임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활동을 거치면서 제 시각과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법과 정치가 실제 사회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그 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제 마음가짐도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흥미로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과정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정리하며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사고의 기본인 문제 인식과 논리 전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법조인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며 느낀 점은, 판결문이 상당히 길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는 그 자체로 난해하여 법적 배경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기에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중요한 판결문의 핵심을 보다 읽기 쉽게 풀어 쓴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작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점검 및 이행을 조사 봉사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주로 대표 공약만 접해왔기에 세부 공약이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

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사실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그 보고서가 방대하다 보니, 이행률을 한 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을 하나의 엑셀 파일에 정리해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직관적으로 보이고 평가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약 이행률 조사의 중요성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자 국민의 약속이기에,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물론 공약의 수가 방대하고 각 공약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활동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뿌듯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단순히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과 강의로만 접하던 법과 정치가 실제로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움'과 '봉사'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배우며 성장하는 동시에, 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활동의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번 봉사활동에서의 성찰과 배움을 잊지 않고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길을 고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 고려대학교 류 ○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우선, '민선 8기 부산광역시 박형준'의 정책 실행 상황 검토를 중심으로 필수활동인 공약이행률 조사를 진행했다. 근거 자료를 통해 이행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활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공약이 많다는 사실과, 실제로 모든 공약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등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 공약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보도 자료, 시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공약마다 절차적인 복잡성도 달랐고, 시민 반발 등 다양한 외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체감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공약 실천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획하고 이행하는 간단한 과정이 아닌, 예산 확보,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구체화되고, 발전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부분을 체감하게 되었다. 시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대학에서 행정 관련 수업을 들으며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앞으로 시의 공약 이행 관련 기사가 보도되거나 관련 사례를 접할 때, 보다 관심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책은 국민 생활과 내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의성이 높아 분석의 흥미와 의미가 더욱 컸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평소 관심 있었던 이슈인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주제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평소 두 언론사가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을 대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편향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려 노력했다. 이를 위해 5개 분류 체계라는 분석 모델을 고안하여 기사별 쟁점과 보도 논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분류과정에서 기사 판단과 쟁점 연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분석을 통해 신문사별 논조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

정책 보도는 단순한 팩트 전달을 넘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논조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같은 날짜에 발행된 기사라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정 사건이나 정책 시행 초기와 이후 보도량의 변화에서도 언론사별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조선일보는 주로 국내 계층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강조한 반면, 경향신문은 소상공인 지원과 이주민 배제 문제 등

정책의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날짜별 보도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 발표 직후, 시행 초기,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논조와 기사 비중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동일한 주제라도 시점, 주관점에 따라 언론이 다르게 접근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기사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정책과 사회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번 이상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완성된 봉사활동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 뿌듯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비교하고, 날짜별 흐름과 논조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정책 이슈를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대학교에서 행정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봉사활동에서 공약이행률 조사와 언론모니터링, 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 정책 분석 등 다양한 실질적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론으로 배운 행정 지식이 실제 정책과 시민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고, 각 활동마다 정책의 설계 및 실행 과정, 여론 형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공약 이행 과정을 추적하고,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어떤 워딩을 사용해 시민에게 전달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봉사활동이었다.

○ 성균관대학교 김 ○ 은

평소에 법과 정치에 흥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단지 뉴스나 신문으로만 사건들을 접할 뿐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잘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법'과 '정치'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학기에 참여한 두 가지 활동인 민선 8기 이행률조사와 언론모니터링은 그러한 일상적인 '법'과 '정치'를 체험하기 매우 안성맞춤이었던 활동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민선 8기 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많이 느꼈던 인상은 아주 세세한 공약들도 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시장들이 유세 당시 제시한 공약이 작은 부분에서도 지켜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뉴스를 자료 조사 도중 발견하다 보면 저 역시 흐뭇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어떤 공약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누리집에 현황을 세세하게 기재하여 자료 조사하기에도, 현재 현황이 어떠한지에도 파악이 쉬웠습니다. 한편 도로 사업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직까진 계획이나 예산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공약은 그만큼의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당연한 사실 역시 이번 활동을 통해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이슈분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이슈로 선정한 것은 제일 최근에 그만큼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후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규탄 대자보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고, 당시 주변에서도 탄핵 시위에 나간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여러모로 제 삶에 많은 인상을 남긴 해당 이슈에 대해 좀 더 깊이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표 언론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경향을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 분석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의 경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체감하였고, 동시에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각자의 관점에서 일리 있는 주장이 있어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회 이슈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실제로 해당 이슈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이 마냥 하나의 언론만 보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세력들의 문제점을 많이 다루기도 했죠.) 이번에는 두 개의 언론밖에 분석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언

론들의 보도경향은 어떠했는지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욕심 역시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생각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최근 들어 더욱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정말로 '법'을 일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귀중한 경험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 김 ○ 현

법률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해보는 계기이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선 법정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정방청을 가 보고 싶었으나 마땅한 계기가 없고 방법을 잘 몰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기회로 삼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법정에 들어가니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던 데서 강의 시간에만 배웠던 공개 재판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고, 특히 놀라웠던 경험은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형법 강의에서 배웠던 여러 조항들이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법과 법학이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법조인 분들께서 각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고, 피고인을 변호하고, 혐의를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등 사건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서도 이전 학기에 수강했던 헌법 강의에서 다루었던 중요 판례를 보다 깊이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학이라는 저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는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한 면접일정조정의 유효성과 타당성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두어 제가 큰 흥미를 느꼈던 판결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원심 판결문까지 찾아보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 원심판결과 이를 뒤집은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의 차이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판결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들어 평가도 내려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아가 번역봉사 활동을 통해서 외국의 헌법을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공부를 한 것을 통해 쌓아온 여러 실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의 헌법을 접해볼 기회도 없었거니와 접하더라도 번역이 이미 된 외국 헌법을 그저 읽어보는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나 번역봉사를 통해 외국의 헌법을 맥락을 살피며 직접 번역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상투메 프린시페, 스리랑카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대학교에서의 강의와 법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 헌법과 법률을 공부해 보았던 경험과 함께 영어와 독일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통해 배운 외국어 능력을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헌법이 외국어의 것이라도 기본적인 조항 내용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각국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법에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 역시 느꼈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특히 독일어로 된 룩셈부르크 헌법 약 10페이지 정도를 번역한 경험이 아주 값지고 감사했습니다. 독일어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배우기 시작한 언어인데, 지난 학기에 독문과에서 회화 전공 강의를 수강하며 쌓은 독일어 능력을 번역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며 독일어의 법률용어가 각 단어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흥미로운 점 역시 발견했습니다. 한편 독일어 번역의 난이도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꽤 높게 느껴졌는데, 대략적으로 조항들을 이해할 수 있음에 뿌듯하다가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더욱 매끄럽고 사전의 도움을 덜 받는 번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연맹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실력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영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저는 법률연맹단체에서 주관하

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우 의미 있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경험으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학기의 활동들이 봉사의 기본 자세를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여름은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 실무를 경험하며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굳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봉사활동의 각 단계는 저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먼저 6월에는 콜롬비아, 스위스, 러시아의 법률 번역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각 나라의 법률 문서는 그저 문자로 이루어진 규범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법률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고, 스위스 법률에서는 연방주의와 지역 분권의 원칙이 어떻게 법률에 구현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법률 번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흔적을 법 조항 곳곳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법률을 단순히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요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더욱 심층적인 법률 분석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2021두3156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와 '2022두4328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증여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복잡한 세법 규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고, 건축허가 관련 판례를 통해 행정법의 원리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법원의 고심과 논리를 파악하는 과정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짜릿한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이행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정길, 고남석 구청장(인천 미추홀구, 연수구)의 공약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약속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행정 자료와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공공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 봉사활동은 저에게 깊이 있는 지적 탐구와 함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법률연맹단체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법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 한국조지메이슨대학 김 ○ 현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언론 모니터링, 헌법 번역,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언론 모니터링을 시작할 때는 여러 일간지의 방대한 사실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언론사들이 다루는 주제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언론사마다 강조하는 부분이나 논조가 달라지는 점은 특히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신문은 사회적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더 크게 다루는 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언론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거듭하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가 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언론이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문화나 생활과 같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 언론이 보다 다양한 주제를 조

명하여 사회 전반을 균형 있게 비추어주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 경험은 언론의 시각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비교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앞으로도 뉴스와 사실을 접할 때 좀 더 주체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번역 활동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각국의 법 체계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와 번역 대상 헌법의 용어가 달라 혼란스러웠고, 조문 체계가 상이해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특히 사모아 헌법의 종교적 의미가 강조된 선서 양식은 한국 헌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였다. 이를 통해 헌법은 단순한 규범적 텍스트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가마다 사법체계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면서, 법이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사회적 산물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는 불학기에 이어 진행한 활동으로, 이번에는 서울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불학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을 다루었다면, 서울 지역은 공약의 수와 범위가 훨씬 방대하고 복잡했다. 교통체계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은 시민들과의 갈등이 크고, 이행 과정에서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공약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정책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자도 많아서, 행정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난관을 더욱 생생히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언론, 헌법, 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언론 분석을 통해 저널리즘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민했고, 헌법 번역을 통해 각국 법 체계의 다양성을 이해했으며, 공약 조사 활동에서는 정치적 약속과 행정 현실의 간극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법과 사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뜻깊은 학기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천적 관심을 이어가고 싶다.

○ 경희대학교 김 ○ 준

2025년 여름학기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법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제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체험한 여정이었다. 법률 소비자연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는 법이 추상적 규범이 머물지 않고, 생활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번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활동의 취지를 접했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한다'는 과제는 단순히 봉사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고민해온 공공성의 언어와 맞닿아 있었다. 법은 전문가의 전문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공약이행을 조사는 그 연장선이었다. 거창군과 고성군의 민선 8기 지자체 공약을 점검하며, 선거에서 제시된 약속이 행정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추상적인 공약 문구를 행정자료와 대조해 실제 이행을 산출하는 과정은 '정치적 약속을 제도적 성과로 검증하는 일'에 가까웠다. 나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선거일에 끝나지 않고, 이후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헌법 번역 봉사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세르비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헌법을 옮기면서, 법 문장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는 언어라는 것을 배웠다. 특정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미를 최대한 충실히 살리는 것'과 '우리 법체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비교법적 시각, 더 나아가 '법의 언어가 국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판결문 리서치는 무겁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대법원 2024도2940 사건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라는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원이 사실을 어떤 구조로 서술하고, 어떤 법리를 통

해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꼼꼼히 따라가야 했다. 동시에 '이 언어가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이해되는가'라는 시선으로 다시 판결문을 읽어야 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법률 문장이 단순한 기술적 서술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삶, 그리고 사회적 파장과 직결되는 서사임을 깊이 느꼈다.

돌아보면, 이번 여름학기의 활동은 내게 세 가지 확신을 남겼다. 첫째, 법은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 검증의 대상이라는 점. 둘째, 법은 언어의 경계 너머에서 비교와 번역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법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쓰일 때 비로소 공공성을 획득한다는 점이다.

나는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며, 이 세 가지 교훈을 실천적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제도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풀어내고, 제도가 약속한 바가 현실에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며, 법을 통해 사회적 약속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이번 봉사활동이 내게 남긴 가장 큰 과제이자 다짐이다.

○ KAIST 윤 ○ 원

이번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판결문 리서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작년 여름에도 참여하였는데, 판결문을 분석하고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이 뜻깊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참여했다. 이번 여름에는 관심분야인 의료 소송 관련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판결문은 2018다263434,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었다. 환자가 수술 이후 사망하여 환자의 가족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환자의 가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의료현장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신경외과 수술의 특성상 뇌출혈과 같은 위험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한 판례는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차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다303995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수 있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장애와 손해가 남기에 억울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장애가 수술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손해배상금을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

의료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구조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특히 1심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의료 용어와 질환이 난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었고, 법원의 노고가 느껴져 존경심도 들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나는 단순히 판결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법적 논리의 타당성까지 고려하는 법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료 소송 판례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법적 판단은 언제나 논리적 타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며 균형 잡힌 법률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박 ○ 희

저는 2025년 봄학기과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

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법률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법률 자료와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시야를 넓히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먼저, 봉사 초기에 참여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립 목적과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참여하게 될 활동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 담당하게 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사건(2022두57503) 분석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 부과와 정당성과 관련된 분쟁으로, 세법 해석과 행정적 판단이 어떻게 납세자 권익과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해당 세목의 부과 근거, 경정청구의 요건,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분쟁이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지방 재정과 시민 생활의 균형과도 맞닿아 있음을 배우게 되었고, 법률 문헌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였습니다. 안동

시, 영덕군, 신안군, 장성군 등 여러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공약 이행이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각 군청의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공약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행률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 모니터링 - 경제신문 사설 분석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주

요 경제 일간지를 대상으로 사설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정책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성향과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 관세 협상, 기업 규제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균형 있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장차 제가 법률이나 정책 연구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문 분석, 지자체 공약 조사, 언론 모니터링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제 학문적 지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임 ○ 중

지난 봄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연속으로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외국 헌법 번

역 봉사, 판결문리서치, 2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직전 학기의 소감문에는 법정모니터링 봉사와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중점적으로 작성했었기에, 본 소감문에는 번역 봉사와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느낀 점들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헌법 번역을 수행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

지만 각국의 다양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저마다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배로 인해 민주주의는커녕, 나라의 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나라들도 있으며, 유일무이한 특이한 정치체제 및 풍습을 지닌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자의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생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한편,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가 있기도 합니다. 봄학기부터 5개국 이상의 헌법을 보며 다양성은 물론, 다양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비교적 능통한 봉사자인 제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다양한 헌법을 한국어로 옮기고 그 나라의 특징을 정리하여 읽기 쉽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름학기 공약이행을 조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두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선거의 승리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는지, 행정처리가 시급한 사안을 미루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샅샅이 뒤지는 것은 물론, 구청 및 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현황 자료 및 예산 자료 등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를 직접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모두가 이러한 모니터링에 나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지역의 시민이 해야 할 작업을 먼저 대신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약 하나를 조사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으나, 점차 익숙해지며 능률이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라도, 서서히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높이면 모두가 주권을 유감없이 행사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개 학기, 약 5개월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하며, 법과 사회를 가깝게 만들고 있다

는 생각을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법과 사회를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막연하게 품어왔던 것 같은데, 그것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개인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는 미약하겠지만,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면 그 영향력은 창대해질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위한 활동인 동시에, 스스로의 부족함도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렇기에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더욱 관심이 커졌고 법과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인지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이 ○ 슝

2024년 봄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그리고 2025년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선배님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처음 신청하였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어 느덧 다섯 학기째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제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우리 사회 속 법률을 직접 느끼고 파헤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꾸준히 해왔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 법원이 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령 분묘 발굴에 관한 민사사건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판단할 때 기계적으로 제사주재자 여부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분묘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해왔는지, 분묘가 파헤쳐졌을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대리모가 의뢰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며 친자관계존재확인 소를 청구한 사건도 흥미로웠습니다. 친자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대법원은 친자

관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점을 들어 자녀를 보호해주었습니다. 법률은 결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분류 및 공약 이행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진행하며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약에 대한 질적 평가가 없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A 공약이 잘 지켜졌지만, 그 공약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별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공부와 사회 활동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김 ○ 영

지난해 겨울학기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총 세 학기에 걸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단순한 참여 이상의 깊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법률 텍스트의 번역과 조사'라는 다소 낯선 영역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정이 법학적 사고력과 사회적 감수성을 동시에 키워주는 소중한 기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 번역 봉사는 제게 큰 도전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세네갈, 시에라리온, 세인트루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헌법 조문에 반영되는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차원을 넘어, 법률 용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는 과정은 깊은 집중력을 요구했고, 동시에 법률 텍스트가 지닌 무게감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이상을 담는 틀이라는 점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14다49180 손해배상 판결문을 조사하면서, 추상적인 법 이론이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제진로와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회적 균형을 조율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법의 살아 있는 작동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공약이행률 조사와 같은 활동은 법과 행정이 국민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율과 행정 집행이 단순히 제도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는 제가 '법률 봉사'라는 활동을 단순한 학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은 제게 법학적 지식을 넓히는 기회이자, 더 나아가 공동체 속에서 법의 의미를 다시금 사유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봉사활동이 모여 하나의 긴 여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이 경험에서 얻은 통찰과 성찰은 앞으로 제가 법학을 공부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다해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가 속한 자리에서 법과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 서울대학교 김 ○ 셉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 일환으로 충청남도 태안군과 홍성군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공약 이행률 조사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발견하였

습니다. 농어촌 지역인 태안군과 홍성군의 경우,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일부 공약은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의 지원 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약속된 사업이 실제로는 상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중 확인한 일부 공약은 구체적인 수치나 달성 지표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치인의 성과 포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공약 이행률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적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담보하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공약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주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약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지역 주민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얻게 되고,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약 관리 제도는 단순 평가 차원을 넘어, 투명성 확보(정치적 보고 체계 강화), 주민 참여 확대(공약 이행 점검단 운영), 그리고 실질적 책임성 강화(이행률 공개와 행정적 후속 조치 연결)라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번역 봉사에 참여하여, 솔로몬제도, 베트남 헌법, 남수단 헌법의 일부 조항을 번역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적 맥락과 법체계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헌법을 번역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회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전문과 조항 곳곳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고, 경제 운영 또한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기본권 규정에서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와 집단을 위한 의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남수단 헌법은 신생 독립국의 헌법답게, 국가 통합과 민족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부족이 공존하는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종교·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주로 국가 정체성과 민주적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남수단 헌법은 ‘분열을 막고 국가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번역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 정당제도, 기본권의 위위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일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이 사실상 제한적이고, 남수단과 같은 신생국에서는 헌법이 ‘국가 통합’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기본권 보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직접 번역하며 접하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 안정성이 가지는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연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지난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활동하는 학기이다. 지난 학기에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만을 하여서, 여러 활동을 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 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뿐만 아니라,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과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 활동도 할 수 있었다. 언론과 정치 분야는 법 분야에 비하여 평소에도 관심이 적은 편이었기에 지난 학기에는 피하려고 했지만, 이번 학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에서는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을 선택하여 7월 첫째 주의 사설 전부를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평소 언론사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설을 제대로 스크랩하여 분석해보니 각 언론사의 색깔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어려웠던 점은, 사설을 분석하는 나 자신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언론사들의 성향을 알고 있다보니 그 관점에서 사설을 분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설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 되려 표면적이고 형식에 얽매이는 분석을 하게 되었다. 이 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속 신경 쓰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속도가 더뎠다. 결국 고민 끝에 언론사의 성향은 참고만 하고, 사설에 담긴 내용만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던 언론사의 성향과 내용이 약간 다를 때도 있었고, 한 방향에만 치우쳐서 분석하지 말아야겠다는 배움을 얻었다.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수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사실 나도 유권자이지만, 투표를 할 때에는 후보의 공약을 보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결정하면서도, 선출된 이후에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말이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고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했다. 내가 조사한 완주군수도, 무려 125개의 공약이 있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꽤 많았다. 어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에도 내세운 공약도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우리 사회에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만 있는 공약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행될 수 있는 공약인가를 꼭 유념하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결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방학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평소에 가깝지 않던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 배우고 깨달은 것들도 정말 많았다. 이번이 2회차 봉사활동인 만큼 지난 학기보다 더 알차게 활동하였다고 생각해서 뿌듯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 다음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중앙대학교 김 ○ 민

2025년 여름,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학문적 배움과 사회적 실천이 맞닿아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지난 봄학기에 활동하였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연장하여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작성한 오리엔테이션 회신문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사의 취지와 방향성을 제 스스로 정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활동은 외국 헌법 번역 봉사였습니다. 네팔, 루마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가진 나라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 별로 다양한 특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익숙한 저에게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번역하며 가지는 시간들을 무척이나 색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 나라의 정치체제와 가치관을 담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법률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사고력과 법학적 감수성이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권 조항을 번역할 때는 각국이 보장하는 권리와 그 한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의 장점과 개선할 점까지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력분립 구조나 정부 형태를 비교하면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이 법 문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률 문서를 다룰 때 요구되는 치밀함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제게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의 이승화 군수와 남해군의 장해남 군수였습니다. 두 지자체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행정 추진 현황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단순한 선거 때의 약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역량, 재정적 뒷받침, 시민의 요구와 참여가 함께 맞물려야만 실현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하였던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과는 달리, 3차 조사를 하며 지금까지 이행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경상남도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행정 환경에 따라 공약의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면서, 정책 평가에는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맥락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조명하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제 작은 노력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서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번역과 조사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들은 결국 '법과 정치의 민주적 구현'이라는 공통된 가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저는 그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학문적 탐구심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지향하는 참여·감시·책임의 가치를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경험의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김 ○ 기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사회에서 법과 정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법조계의 각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볼 기회를 주었고 실감하게 해주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활동은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와 헌법 번역 활동이었다. 평소 들어가 볼 일 없던 지역 구청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지고,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공약을 이행, 수정, 추진하는 과정과 언론을 통해 홍보해온 기록들을 보며, 생각보다 다양한 공약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생각없이 당연히 여겨온 깨끗한 도시 미관, 안전한 치안, 편리한 시설들이 구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개선해온 결과라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당선인의 능력을 벗어난 공약들도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00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공약들인데,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자신의 지역의 이점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들이 메인 공약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실현되기에 무리인 공약들이었고, 실제로 장기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됐거나 아예 무산된 것들도 있었다. 유권자들에게 가장 어필된 공약들은 아마 그런 커다란 공약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오묘했다. 그래도 자신의 지역의 입장을 되든 안되든 어필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록 공약 달성은 어려워도 부가적인 혜택이 창출된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도 기억에 남는다. 학교에서 기본권과 헌법 강의를 들으며 국가의 헌법 제정 과정과 헌법의 전체적인 틀에 담긴 의미를 배웠던 것이 헌법 번역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헌법을 실제로 번역해보며,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며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 상황의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헌법 번역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헌법을 번역하기보다 그 나라의 배경, 역사, 민족 구성, 가치관, 문화, 그리고 종교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조사를 마친 후 헌법을 들여다보면 헌법 조문들에 헌법 제정자들이 담으려 한 그 나라 국민의 공동 가치들이 무엇인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다. 법정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살짝 긴장되었고 재판당사자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법정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들어서면 경위와 법정 직원, 법관 검사, 변호인, 당사자들 중 방청객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 나도 법정에 들어가 앉아 어색함이

곧 사라졌고 재판을 이루는 변호사, 법관, 검사의 역할 수행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다. 형사재판들을 방청했는데 우선 검사와 판사의 업무량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변호사는 다소 불성실하게, 어떤 변호사는 성실하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을 보며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과 재판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버벅거리는 피고인들을 보며 법조인의 역할이 그러한 이들을 위해 필수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고, 오가는 데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법조인의 진로를 꿈꾸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들에게는 꼭 한번은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 연세대학교 오 ○ 연

이번 학기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며, 내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즉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이었다. 단순히 법의 적용과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속한 시장과 사회의 맥락 속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주 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당한 채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내가 이 판결을 읽으며 느낀 것은 인간적인 연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협소하게 구성된 한국의 주식 투자 생태계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투자자 보호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만 시장의 신뢰와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리서치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근 한덕수 전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사례와 맞물려, 이번 판결은 법의 해석이 단순히 조문에만 기대지 않고,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이란 결국 사회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처럼 투자 생태계가 좁고, 대주주 중심의 구조가 강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법이란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와 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특히 입법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입법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법이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과 판결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내게 법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 경희대학교 강 ○ 은 민주 사회로 가는 길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의 여름 학기 필수 봉사활동의 내용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두분의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많이 지켜지고 지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의 대변인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활동을 꾸준히 관찰하면 지역 현안이 잘 반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필요시 피드백과 건의를 한다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더더욱 법안·정책·의회 절차에 대해 배우게 되고, 정치적 이해력·비판적 사고력도 향상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더더욱 강화되고 청년이나 학생에게는 시민교육 효과도 커져서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사회로 커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행한 봉사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판결문 중 특히 기억나는 판결문은 대리모에 대한 판결입니다.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리모에 대한 판례라 먼저 관심있게 리서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유전자적인 친모로 인정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 역시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로부터 이중 부담을 가지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로써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앞으로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민주 시민은 단순한 수동적 '국민'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저 역시 수동적인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법계 넓길만한 지역 뉴스와 지역 국회 의원 활동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전 공약도 살펴 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이 민주사회로 가는데 조금씩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힘이 아닌 우리 모든 국민의 힘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 경희대학교 강 ○ 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특히 법정모니터링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조사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과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선택하였는데,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역할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단순히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보며 정당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정치인이 단순히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봉사활동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복잡성과 법률 용어의 난해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먼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원하는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필요시 판결문 제공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한 후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결문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법률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이 저에게 준 깨달음과 배움은 앞

로도 계속해서 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천대학교 강 ○ 재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도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다. 봄 학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다. 저번 활동에도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활동이 훨씬 뜻깊고 보람찼다.

이번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판결문 리서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필자는 미래에 법조인이 된다면 조세법이나 회사법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되고 싶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세법이나 회사법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듣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판례의 일부분만 본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만 봤을 뿐 내가 직접 읽어볼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관련 판례를 내가 직접 찾아보러 전문을 읽어보고 싶었다.

이러한 갈증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총 5번, 25시간 진행했는데 조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관련 최신 판례와 회사법 최신 판례들을 1심부터 3심까지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일단,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최신 판례를 알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순히 보이던 조항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배워가며 기존의 지식을 다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결문을 읽어내는 요령을 얻어냈다는 점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판례를 접했을 때는 쟁점을 찾고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판결문이라는 긴 글 자체가 가독성을 중시하며 쓴 글이 아닐뿐더러 평상시 접해보기 어려운 법률용어들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처음 리서치때 사전 검색을 계속 했던 기억이 생각난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웠을 뿐, 점점 적응되어 5번째 활동에서는 수월하게 진행했다. 판결문에 대한 독해력이 회차를 거듭하며 개선되었던 이유는 아마 판결문을 읽을 때 전체 내용을 같은 비중을 두고 읽는 것이 아닌 쟁점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세부정보들은 참고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의식적으로 위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읽는 것과 그냥 닦는 대로 읽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법조인이 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로스쿨 입시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변협에서는 변호사 시장 포화로 합격인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이 불경기의 큰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본인에 대한 강한 믿음, 성실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꾸준함과 동반된다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

○ 건국대학교 고 ○ 현

법의 진정한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다. 지금껏 대학에서 많은 교양과 전공 수업을 들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법을 접한 일은 꽤 있다. 하지만 정작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며 세부 사항의 판단을 위해 법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2025년 여름학기 동안 진행하였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의 중요성과 역할을 넘어 이것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2025년 여름학기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는 선택활동인 외국 헌법 번역봉사와 필수활동인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를 진행하였다. 번역봉사의 경우는 지정된 국가의 헌법을 일정량 번역하는 봉사로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접함과 동시에 헌법 문서에 담긴 법률 관련 용어를 접한다

는 점과 법체계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얻는 것이 많은 봉사였다.<중략>

민선8기 공약 이행률 조사는 여름학기 봉사활동 중 필수로 진행한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시기 내세운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었다. 경상북도 울릉군과 청송군의 공약 이행률 조사는 각 100개 이상의 공약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서 진행되었는데 많은 공약을 읽어보고 진행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부흥과 개선을 위해 실행하는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약이 다르게 편성되고 시행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법과 행정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주민의 특성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함을 깨닫게 했다.

이번 여름학기 진행한 봉사활동은 단순한 법의 이론적 이해를 넘어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외국 헌법 번역봉사를 통해 법이 국가의 역사, 가치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함을 배웠다. 또한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조사해 법과 행정의 실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바지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법이 단순한 제도가 아닌 사회와 사람을 연결하는 질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제는 법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규범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필요로 인해 형성되는 살아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연세대학교 권 ○ 수

2025년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참여한 주요 활동은 헌법 번역 봉사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 조사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법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중략>

또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 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달성군을 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약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이행 정도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공약이 단순한 선거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임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 감시 활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제도가 단순히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서도 각국 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국제적 다양성을 배웠고,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실질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배움과 성장, 그리고 보람을 안겨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권 ○ 원

이번 여름학기 동안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라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단순히 법학적 지식을 조금 더 접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대만 있었는데, 실제로는 법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번역 봉사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적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하던 법학 용어와 개념을 외국어로 접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풀어내면서, 번역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법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작업임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작은 표현 하나가 문장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법학을 연결하는 감각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판결문 속에서 핵심 쟁점을 빠르게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번째 리서치를 할 때는 판결문을 읽는 요령을 익히게 되어 보다 더 수월하게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을 구분해가며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전 보다 훨씬 수월하게 판결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단순히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읽다 보니, 법원의 논리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판사들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판단의 단계를 거치는지 체감하고, 저 자신이 판사였다면 동일한 판결을 내렸을지 고민해보면서 법적 사고방식에도 조금 더 가까워지며,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는 법률 소비자 운동이 단지 법률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치적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공약이 단순한 '선거'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임을 체감하게 되었으며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책임 정치'가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이 단순히 법률 지식을 나누는 단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와 소비자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앞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서도 언어적, 법률적 표현의 정밀함을 배웠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도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해했으며,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서도 법률 소비자로서의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을 단순한 학문적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지식으로 여기며 더 폭 넓게 공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서강대학교 김 ○ 경

이번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대법원 판결문리서치와 국제헌법번역을 통해 법률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과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을 중심으로 한 심층분석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법리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2024년 1월 4일 선고된 2022도699 판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터넷상의 표현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분석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그 한계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공간에서의 법적 책임과 개인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23년 2월 2일 선고된 2022도4719 판결은 모욕죄사건으로, 특히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성립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문자 등의 언어적 표현이 아닌 시각적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표현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표현방식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방식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두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법원이 명예훼손과 모욕관련 범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며,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간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어나가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리분석을 통한 판례 해석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중략>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내외 법률지식과 시민의식 모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법률소비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부산대학교 김 ○ 재

2025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신청했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마치게 되었다.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법정을 방문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봉사활동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보지 못했을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가장 처음 하게 된 것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읽고 문제지를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법률소비자연맹을 무얼 하는 곳인지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흥미를 느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결문은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고 먼 세계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막상 판결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건을 찾는 것과 판결요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어도 1심과 2심의 판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리서치하기 좋은 판결문을 찾는 게 까다롭게 느껴졌다. 또 1심과 2심의 경우에는 판결요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판결요지라는 걸 작성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판결문의 요지를 읽고 작성하다보니 쟁점파악도 더욱 쉬워졌고 사건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시의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어서 판결문을 더욱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다. 이 판결문은 명예훼손의 요건과 그 충족여부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고 있어서 초심자가 읽기에 적합했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큰 흥미를 느끼게 한 판결이 되었다.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판결은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을 읽는 것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전문을 읽어본 것은 처음인데 법관의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결론 판단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중략>

마지막으로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을 조사는 가장 힘들었던 활동이었다. 그 이유는 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뉴스 기사나 지자체의 문서를 가장 많이 보게 되었는데 공약의 수에 비해 자료는 현저히 적었다. 또 생각한 것보다 많은 공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 기사나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공식적인 사이트에 정말 많은 공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활동은 나에게 앞으로 내가 사는 곳의 공약도 알아보고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경희대학교 김 ○ 찬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적 분석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께 기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 제한기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 소송 판결문 분석, 한약사 한약 택배 판매 행위의 약사법 위반 여부 판결문 조사·분석,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관련 판결문 분

석, 방사성 물질 문제로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침대 매트리스 사건 판결문 분석'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 및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보도경향을 조선일보·한겨레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언론 모니터링, 경기도 구리·군포 두 시장의 공약 이행을 조사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조사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법의 구현'과 '법의 목적'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콜택시 사건에서는 형식적 기준이 실제 수혜자에게 어떤 장벽으로 작동하는지를 발견했고, 난민 관련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과 인도주의적 고려가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약 택배 사건이나 매트리스 방사능 사건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기호와 공중보건의 교차지점에서 법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언론 보도경향 분석을 하면서는 동일한 정책이 매체별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주안점으로 삼는지에 따라 다른 여론 형성 효과를 내는지 체감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판결문을 읽고 핵심 쟁점, 판결의 근거 등을 요약·서술하는 연습을 통해 법적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였으며, 형식적 규정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난민 사례에서 '인권적 관점'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판결문이나 보도 자료를 다룰 때 더욱 다양한 출처를 체계적으로 대조·검증하고, 당사자 인터뷰나 현장 목소리를 보강했다면 분석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법리 분석뿐 아니라 현장 증언과 과학적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사례 분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소비자들과 시민이 법과 정책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일에 더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남대학교 김 ○ 하

이번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여름학기 필수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강원도 화천군과 횡성군의 공약이행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약들을 처음 둘러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공약들이 있어 다들 이렇게까지 많은,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신경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여러 공약들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 핵심적이거나 큰 줄기의 공약들만 둘러봤기에 몰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 청년, 노인, 창업, 취업, 관광, 교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뉴스와 화천군수실, 횡성군수실 사이트를 둘러보고 이행을 조사하였는데 사실 이전에는 공약들을 내걸어도 대부분 지키지 않고 그냥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꽤 많은 공약들의 상당부분을 진행하였고 화천군 같은 경우 전국 공약 이행을 평가 1위로 상당히 흥미롭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공약들도 다시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모습을 보았고 여러 가지 외부 평가에 대응하고 군수실 사이트를 통해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률이 미진하거나 시도조차 못한 공약들을 보았고 이미 성공하고 완료한 공약들처럼 남은 공약들도 최대한 진행하고 후임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도록 진행하면 군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김 ○ 기

평소에 헌법에 관심이 있어 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교양 과목을 수강한 적도 있고, 따로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했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 번역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은 우리 헌법과 어떻게 다를지 호기심이 생겨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공받은 영어 파일을 기준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프랑스어 원문 pdf를 따로 다운받아 영어본과 비교해 가며 번역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두 본문은 문장 구조나 어휘, 낱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와 영어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본문의 낱어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살리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직역과 의역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다.<중략>

이 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법률 조항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법리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철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추론하여 적용한 부분을 읽으며, 판결이 단순히 법률 문언의 문자적 의미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입법취지, 판결의 결과 발생할 법익의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법조인을 꿈꾸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조인의 실무 현장에 가 볼 생각이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원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여러 차례 법정을 드나들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실무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열을 내어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변호사 없이 출석한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경고해주는 판사 등,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애쓰는 모습은 멋져 보였다.

○ 중앙대학교 김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름학기봉사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학기들과 달리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겨울, 25-봄학기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스스로 계획했던 봉사활동 일정을 지키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최소 봉사활동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 학기인 25-여름학기기로 이월 후 남은 봉사활동시간을 채운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봉사활동을 미리 해나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24-겨울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와 법정보니터링을 주축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매학기 꾸준히 해온 활동이지만 해당 학기의 경우 판결문자체에 대한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 양식의 한 부분인 용어해설의 경우 그 취지를 살리고자 최대한 법률용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판결문의 법률용어가 법률용어사전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전에도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용어를 만나면 판결문과 법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검색엔진에 검색하여도 법적인 차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용어들의 경우, 판결문자체에서 각주 등을 이용해 용어의 뜻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25-여름학기는 필수활동인 의정보니터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위원의 정책추진에 대해 접수를 매기기 전,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포천시의 사이트부터 기사와 용역모집공고 등까지 폭넓은 자료를 통해 정확한 진행단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약이 완전하게 이행된 것부터 아직 진행중인 것, 특유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불가판단에 이른 것까지 다양한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과정을 통해 수립된 공약이 이행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약24년도부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강의만으로는 느끼고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사회와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크고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활동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고 봉사자로서의 제가 나날이 발전해간다고 느껴졌습니다. 봉사는 무엇보다 봉사를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소중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진실한 봉사자의 마음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김 ○ 민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지방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이행률과 조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행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었는지의 여부가 개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가 맡은 두 개의 지역은 마치 각각의 이미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상이하였는데, 인접한 지역 그리고 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공약의 차이를 구경하는 것이 다소 흥미로웠다.

조사를 하며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또 시/구/군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종종 거주지의 구청 사이트를 틈틈이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으로는 직접 정보를 찾지 않거나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다양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스톱 복지 신청처럼 찾아가는 식의 정책 홍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2. 언론모니터링-사설분석

6월 둘째주에 10대 경제지에 보도된 사설을 대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한정된 기간에, 동일한 관심사(경제지)를 가진 신문사에서 보도한 사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소재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사설분석을 신청하였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일정 부분은 예측에 부합하였으나 예상 외로 신문사 별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다르기도 하였다. 해당 기간의 사설에서는 코스피5000시대 및 주식시장 선진화(상법 개정안), 최저임금제 논의, 부동산 정책, 한국의 낮은 경제성률과 같은 국내적 상황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의 국외적 요소들이 주요한 소재로 다루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만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신문사마다의 논조가 조금씩은 다르고, 사설의 길이가 길지 않기에 쉬이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부의 규제 및 노동계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러한 논조가 국내 경제를 구성하는 소상공인 및 경영자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가 등장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활동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 고려대학교 김 ○ 연

지난 2025년 춘계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생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기에 여름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필수과제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점검활동을 통해 분석한 지자체장은 박강수(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장과 이성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청장이었다. 두 지역에서 제시된 공약과 이행을 조사하며 재개발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개시 예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보도가 넘치는 반면 실질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충분한 보도가 진행되지 않으며, 공약이 축소되어 진행되거나 아예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겹쳐 있기 때문이겠지만, 재개발 등과 연관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고 지역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실현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번역활동을 통해 4개국의 헌법을 접하였다. 지역은 물론이고 정치체제와 의회 구성 등이 각기 다른 슬로베니아, 슬로문제노, 남수단, 스리랑카 4개국의 헌법을 번역하였다. 번역 전 해당 국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과정이 번역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번역하는 것이 헌법인 만큼, 국가의 정치체제와 의회 구조 등을 이해하는 것이 헌법 해석에 유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영연방 국가의 경우, 영국의 법률용어 등을 참고하였던 것 역시 해석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각국의 다양한 법률을 접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판결문은 2022다 289051이었다. 분석할 판결문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던 점도 유익했고, 정한 판결문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며 분석한 것 역시 유익했다. 국가의 입법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인정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판결문을 보며, 판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하계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치, 사법,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법률 번역활동과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과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깊게 확장시켜 준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이 활동은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를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뒤, 쟁점에 대한 저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남기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판결문을 읽고 논리를 따라가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체계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족 간에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 판례(2021다11938)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반행이 단순히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례에서는 친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위계질서와 친분을 악용한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행위가 아닌 주도면밀한 중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겉으로는 항거하지 않은 듯 보이더라도, 오랜 시간 지속된 관계에서 겪어온 심리적 억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법원이 마침내 구조적 모순과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리서치 과정에서 접한 사실혼·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례(2023두 36800) 역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법은 여전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준칙을 통해 사실상 배우자에 대해 이를 완화 적용해 왔으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를 근거로 사실혼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은 혼인을 전제로서 이성 간 결합으로 한정하는 현행 입법기초 속에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한 시각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동성혼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기존의 경직된 틀을 벗어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마약·음주운전(향정신성 의약품 관

련), 차별구제 등 다양한 판례를 접하면서, 법원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저는 법이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필수 활동으로 진행했던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시장·군수가 내세운 공약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허울뿐인 공약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 선택과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히 선거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봉사활동은 무료한 여름방학을 뜻깊게 만들어 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법은 '사회적 규칙' 그 자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법을 단순히 공부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살아 있는 도구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 중앙대학교 김 ○ 린

이번 봉사활동은 기존에 참여해왔던 단순한 현장형 봉사와는 달리, 법적 판결문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공약 점검이라는 다소 연구 중심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공인재학부 3학년으로서 이제 막 이론적 지식을 심화해 가고 있는 나에게 이번 활동은 그동안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웠던 법과 제도가 실제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법적 판결문이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전문적인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과정은 사건별로 사회적 의미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그 논리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이었다. 「2021다246545 임금청구의 소」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공정책에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다. 또 「2025두32972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탑승 제한 관련 권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하면서,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권리가 단순히 교통 편의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작은 규정 하나가 특정 집단의 기본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2024두35989 연구비 환수 통지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서는 연구 윤리와 행정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학문적 자유와 국가의 관리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했다. 연구비는 학문 발전을 위한 공적 자원이지만, 동시에 공적 자금으로 부정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공공행정의 과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2024도 20371 작업치료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건」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업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다245542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에서는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 여부가 개인의 노동권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이 판결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와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했다.

판결문 분석과 함께 진행한 정헌용 시장과 김동일 시장의 공약 점검 활동도 의미가 깊었다. 공약은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시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공약 점검을 하면서 일부 공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또

다른 공약들은 재정적 한계, 행정적 난관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축소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마련 능력, 행정 역량, 그리고 시민과의 협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약 점검 활동은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행정이 시민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과 제도는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규율하는 구체적 장치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고, 행정은 법적 규범과 시민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 경희대학교 김 ○ 슨

2025년 여름학기를 마무리하며, 낯설면서도 보람찼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돌아본다. 이번 학기는 나에게 단순한 참여를 넘어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법률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첫 번째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였다. 선거 당시 약속된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다. 각 지자체의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공약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며, 공약이행률을 수치로 환산하는 일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는 법적 감시와 행정 평가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선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작동해야 함을, 그리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공약의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은 법이 추상적 이상에서 실질적 제도로 구현되는 순간과 닮아 있었다. 덕분에 나는 정책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눈을 기를 수 있었고, 동시에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공성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 활동은 각국 헌법 번역이었다. 카타르,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언어적 도전이자 법학적 탐구였다. 법률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의 집합이 아니라,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를 담아낸 선언이었기에 단어 하나를 옮기는 데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때로는 생소한 라틴어 뿌리의 개념이나 종교적 배경이 담긴 어휘 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고, 그때마다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사전과 자료를 뒤적이며 시간을 쏟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되긴 하지만 의미 있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법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나아가 비교법적 시각에서 각국의 제도가 지닌 특징과 한계를 성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헌법 번역'은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가 품은 희망과 규범을 다른 언어로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돌아보면 두 활동 모두 나에게 법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공약이행률 조사는 '법과 제도는 현실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헌법 번역은 '법은 언어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법을 단순히 학문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자 삶의 질서를 지탱하는 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값진 성찰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하고, 사회적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살피는 길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이 배움과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공적 법률 활동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나갈 것이다.

○ 국민대학교 노 ○ 영

6월 27일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법률연맹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는 빈칸을 두 교재를 참고하여 채워놓으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첫번째로 진행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다양한 대법원 판례 중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판례를

찾아, 그 쟁점, 사실관계, 전문, 각 법조인들의 이력 및 판례 관련 기사를 리서치해 문서로 작성하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어떠한 판례를 선정할지부터 막막했지만, 평소 관심 가지고 있던 법률이 활용된 판례나, 최근 이슈가 된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선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했지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례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방법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판례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건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최근 형법 시간에 학습한 조문이었기에 관심이 가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다보니, 쟁점을 찾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판결문을 여러 번 살펴보고, 직접 사실관계를 대입해 정리하면서 쟁점을 차차 정리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용어해설을 하면서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만한 법률용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활용되는지, 반대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작성하다보니 단어 하나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렇게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총 6번 진행하게 되었다.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기도 하고, 법을 진로로 하다 보니 판례에 많이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차별구제청구에 대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 하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재미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다. 세 번째로는 특수상해 사건이었다. 사실 이번 판례는 특수상해의 내용보다는 소송법상의 내용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판례였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눈에 띄었다. 또 리서치를 3번째로 진행하다보니 점점 능숙하게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다. 하면 할 수록 다양한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어 자기발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과실치사, 부당이득금반환 등과 같이 다양한 판결문을 보면서 쟁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판결이 있는 반면, 이처럼 비슷한 쟁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판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총 6번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여름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은 국회의원의 공약 사항을 보고, 다양한 기사나 지자체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 약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포함 총 42시간의 봉사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들 중 가장 발전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봉사활동이었다. 다만, 더 많은 종류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2가지 봉사활동에 그친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 연세대학교 모 ○ 윤

2025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으로 나는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총 4개국의 헌법 번역 봉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의 공약 67개, 권기창 경상북도 안동시장의 공약 123개에 대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했다. 총 32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헌법 번역 봉사였다. 각국의 기본 배경지식을 조사하고, 헌법 조항을 해당 국가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법률 용어에 맞추어 번역하는 활동이었다. 처음 번역을 시작하였을 때는 문맥에 적합한 번역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법률 용어를 일일이 찾아보며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점차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며 번역 속도가 향상되었고, 자연스럽게 각국의 헌법구조와도 친숙해지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국가마다 헌법의 기본권 내용은 비슷했지만, 조항의 세부 구성이나 체계, 조문 번호 방식 등은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했다는 점이다. 번역 봉사를 통

해, 다양한 나라의 헌법을 더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한국 법률 용어와도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영어 법률 용어에도 익숙해지면서, 앞으로 영어 법령을 읽어야 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해도 망설임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 수행한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대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였다. 나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권기창 안동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는 봉사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공약을 하나하나 읽고, 각 공약의 이행 여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증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때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이 활동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스스로 깨닫고, 더욱 철저하고 정확하게 임하고자 노력했다. 기사,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조사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행 정도를 고민하며 분석했다. 그 결과,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총 190개의 공약을 모두 분석할 수 있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지만, 막상 조사를 하다 보니 상당수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번역과 공약 분석이라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성격의 활동을 경험하며, 법률적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민 ○ 선

2025년 봄학기에 본 봉사자는 시에라리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남수단, 스리랑카 번역으로 총 4개국 헌법의 번역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최기문 경상북도 영천시장,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에 대한 공약 이행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대법원의 2018두47264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총체로서의 헌법을 분석하고, 한국이 그 국가를 더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특히 지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시 꾸준히 번역 봉사를 수행해왔는데, 주로 미국 각 주 헌법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했다. 그와 달리 이번 학기에는 아시아의 미얀마, 중앙아메리카의 니카과라,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헌법을 번역했다. 지난 학기 봉사까지 주를 이루었던 국가들의 헌법 분석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의 기틀이 되었던 독일, 미국, 일본의 법체와 유사한 서구권 국가들의 법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법률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다른 대륙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함으로써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의 지수가 한국보다 낮거나, 과거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등 비교하고 대조하며 헌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헌법이 비추는 각 국가의 정치적 현실을 성찰하며 반면교사하거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 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공약은 잘 실천된 경우도 많았으나,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주거)와 관련된 공약의 이행률은 비교적 높았던 반면, 문화, 복지 부문의 공약 이행률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아닌, 유권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을 세울 수 있도록 공약 이행률 조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의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면밀하게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법

관의 정의로운 판결과 사법의 기능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로서 사법 감시를 행할 수 있음에 큰 책임을 갖고 봉사에 임했다.

○ 고려대학교 박 ○ 상

2025학년도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법률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또 한 번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쌓아온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을 직접 번역하고 그 법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법학도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한 활동은 해외 헌법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시에라리온 등 다양한 지역의 헌법 일부 조항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단순한 문장 번역을 넘어서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을 이해한 후,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헌법에서는 입헌주의 전통과 헌법재판소 제도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고, 포르투갈 헌법에서는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며 형성된 정치 권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헌법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이후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반영한 기본권 조항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시에라리온 헌법에서는 식민지적 배경과 내전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선거제도와 정당 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경험은 헌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산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시와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공약 이행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은 매우 세심한 검토와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교차 검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감시와 행정 책임을 확인하는 법적 시각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법학도로서의 배움이 단순히 국내법 이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맥락 속에서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번역과 검토 과정, 그리고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법적 개념을 현실 속 정책과 사회적 문제에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제법적 감각과 비교법적 시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학도로 성장하기 위해 학문과 실무를 함께 고민하며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박 ○ 희

저는 2025년 봄학과와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법률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법률 자료와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시야를 넓히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먼저, 봉사 초기에 참여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설립 목적과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참여하게 될 활동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 담당하게 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사건(2022두57503) 분석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 부과 정당성과 관련된 분쟁으로, 세법 해석과 행정적 판단이 어떻게 납세자 권익과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검

토하면서 해당 세목의 부과 근거, 경정청구의 요건,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분쟁이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지방 재정과 시민 생활의 균형과도 맞닿아 있음을 배우게 되었고, 법률 문헌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였습니다. 안동시, 영덕군, 신안군, 장성군 등 여러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공약 이행이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각 군청의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근거로 공약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행률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 모니터링 - 경제신문 사설 분석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주요 경제 일간지를 대상으로 사설을 정리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정책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성향과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 관세 협상, 기업 규제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균형 있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장차 제가 법률이나 정책 연구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법치주의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문 분석, 지자체 공약 조사, 언론 모니터링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제 학문적 지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박 ○ 언

이번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차츰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단순한 봉사를 넘어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학은 교과서나 강의 속의 지식으로만 접해왔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이번 학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판결문을 접했을 때는 수많은 사실관계와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압도되었으나,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단순히 규범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법조문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법의 유연성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했다. 또한 판결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도 쉽게 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역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지방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약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그 이행 여부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외국 헌법 번역 활동도 매우 의미있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국가들의 헌법을 읽고 번역하는 과정을 통

해 문장 하나에도 그 나라의 정치 체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역사적 맥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매번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야 했다. 특히 생소한 법률 용어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표현을 마주했을 때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조사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번역이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활동하는 것을 넘어, 법과 정치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헌법 번역을 통해 시각을 넓혔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적 사고의 깊이를 키웠으며, 공약 이행을 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진로를 더욱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

이번 학기 활동은 내가 품고 있는 법조인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법학 지식을 쌓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제 현장을 경험하며 내가 법조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는 내게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을 일깨워주었고, 앞으로 더 진지하게 법학을 공부하며 공익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법이 단순히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과 끊임없이 맞닿아 있는 생활의 기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직접 체감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가로 성장해야겠다는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박 ○ 은

지난 24년 겨울학기에 이어, 이번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법정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기사 간 비교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름 봉사에서는 겨울 활동 때 경험해 보지 않았던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외에도 여름학기 필수 봉사인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와 10대일간지 언론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으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조사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어떤 선거든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출마자는 없습니다. 공약이란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유심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된 이후로는 이행 현황에 관하여 궁금해하거나 직접 찾아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 타 지역 구청장 두 명의 공약 이행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위해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확인하고, 실제 공약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정말로 이행되었는지 재차 검토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검토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공약 이행도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미 이행 완료된 공약이 많았으나,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몇몇 공약은 상당히 모호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라는 공약은 이행이 되었다는 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약이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령 구체적인 공약이더라도 이행 도중에 중단한다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잦은 이행을 점검이 필요함을 실감했습니다. 지역의 장을 신중하게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선출된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 또한 상당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판결문의 사실관계, 사건 진행 방향, 최종 판결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7832 판결과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 총 두 개의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깨달은 점은 판결문 전문이 다소 불친절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전공자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법한 문장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상적 경합, 실제적 경합, 관계수급인, 포괄일죄 등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장이 끝도 없이 길게 이어져 있으며, 문단도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해석하기 까다로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판결 요지가 나와 있지 않아 직접 요지를 찾아 재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판결문을 읽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판결이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자세한 설명 없이는 혼자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은 저번 활동 때도 경험했던 언론모니터링입니다. 이번에는 8월 첫째 주 10대일간지 사설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기사를 수집하고 스크랩북을 작성하는 첫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스크랩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사를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이때 어떤 언론사가 유사한 입장인지 혹은 반대 입장을 펼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분석 보고서 작성이 훨씬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국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사설 대부분이 정치 분야 기사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도 언론사에 따라 크게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아직 우리 언론사는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비판적 독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기사가 다수 있었습니다. 직설적이며 편향된 표현을 사용한 사설들을 보면서 기사의 스탠스에 끌려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 나가며 방향성을 찾고, 많은 활동을 해 보고 싶습니다.

○ 한림대학교 박 ○ 정

I. 봉사활동 신청 계획

로스쿨 입시를 위해 여러 활동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있기에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번역봉사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검토에 참여 하며 여름학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II.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검토

이번 여름학기 필수 활동이던 지자체장 공약이행 검토는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심이 없어 접하지도 못했을 다른 지역 시장과 군수의 공약과 이행 정도를 조사하며 타지역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어 관심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따라 이행률 점수를 직접 매겨야 하다 보니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고민 끝에 끝낸 봉사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실제로 지역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이행 결과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예산 배정, 주민 의견 반영 등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꼼꼼히 살펴야 했기에, 지방행정의 객관적 모니터링이 지방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하며 기른 정책비판적 사고와 자료 해석력,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 작성 경험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큰 자산이 될 것 같기에, 이 활동이 필수활동이었던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III. 각국의 헌법 번역 봉사

개인 일정으로 인해 봉사를 8월부터 시작하게 되어 한 달 내에 모든 활동을 채워야 한다는 중압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할 수 있는 번역봉사를 최우선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르완다, 슬로바키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이렇게 4개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그 사회의 문화와 현실, 다양한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귀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떻게 공부하긴 했으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뿐 제가 맡은 국가의 헌법에 대해서는 찾아 볼 생각을 평소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번역봉사를 통해 평소에는 인지하지 않고 있던 여러국가의 헌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느 부분이 비슷하고 어느 부분은 다른지 비교하며 각국의 법집행과 문화적인 요소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번역봉사였으나, 이를 거둬들이며 헌법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게 된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IV. 봉사 과정에서 느낀 보람

개인 일정상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해 볼 수는 없었지만, 봉사에 참여한 것 자체로도 의미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 그리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의 가치를 깊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박 ○ 호

이번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률적 사고력을 한층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와 법의 연결고리를 탐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헌법 번역 봉사, 공약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라는 세 가지 활동을 병행하며,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 실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는 언어적 기술을 넘어 비교법적 시각을 기르는 계기였다. 번역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조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이를 통해 각국 헌법이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법 해석에서 맥락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약이행률 조사는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점검하며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약이행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와 실질적 성과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입법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법원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기회였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조사하며 사건의 쟁점과 법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의 판결문을 연구하면서, 여론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법적 판단이 여론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기의 활동을 통해 나는 법률 번역을 통한 국제적 시야, 공약 점검을 통한 정치적 책임 의식, 판례 연구를 통한 법리적 사고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성장을 경험했다. 물론 과정 중에는 낯선 법률 용어 해석이나 방대한 자료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법이 사회를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법과 사회의 연결을 고민하며, 책임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 국민대학교 박 ○ 주

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 2025 봄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2025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세 번째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25 여름학기에는 2025 봄학기 와 마찬가지로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판결문리 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25 여름학기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과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도 진행하였던 봉사활동이지만 100여개에 해당하는 공약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판단기준에 따라 이행점수를 기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약이행률 보고서를 참고 하여 하나하나 비교해 가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관심 있게 공약이행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인 만큼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조차 들어가 살펴본 적 없고, 선거 이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기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에 걸친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통해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공정하게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공약 이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책임 또한 지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필수활동 외에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지세부과처분취소,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준강제추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에 관련된 판결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건,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판결 전문을 살펴보고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법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기사나 판례평석을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리얼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 동아대학교 서 ○ 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보낸 이번 여름은 단순히 흘러보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로스쿨 입학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저에게 이번 봉사활동은 '법'이라는 학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숨 쉬고 작용하는지 생생하게 체감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2016므2510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문을 리서치했던 순간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며 이론적으로는 수없이 접해온 내용이지만, 실제 판례 속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쫓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리가 여러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그 신기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사실 너머에 얼마나 많은 논리와 고민이 숨어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겸손함과 깊이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파라과이, 세네갈, 시에라리온 헌법 번역 봉사는 저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주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각국의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번역하며, 그 속에 녹아있는 해당 국가들의 독특한 역사,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들을 짚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고유한 체계가 아니라, 각 사회의 필요와 염원을 담아내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을 가진 그릇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언젠가 국제적인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저의 꿈에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법학이 단순히 국내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학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

사 활동은 법과 정치, 그리고 행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함안군 조근제 군수와 함양군 진병영 군수의 공약 이행률을 직접 조사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약속된 공약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법의 실제 적용과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저의 소양과 시야를 한층 더 확장시켜 준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법적 리서치와 국제법 번역, 그리고 지방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학문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이번 여름의 경험들이 제가 어떤 법률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인하대학교 신 ○ 호

안녕하십니까? 2025년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신호입니다. 해당 학기에는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와 언론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학기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작업물을 쌓게 되었는데 하나 같이 전부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계열로 진로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지난 봄학기에도 필수 활동이었기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를 파악하면서 이런 종류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해당 활동을 통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진행한 언론모니터링 역시 지난 겨울 학기에 비해 더 심도 깊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신문 기사는 자주 읽지만, 사설까지 찾아서 읽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 작성자의 생각이 담긴 글인 사설을 읽으며 글쓰기가 전하고자하는 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법학적성시험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닌 글쓰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당 글을 작성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데 이를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활동을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서 한 경험이 많지 않기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해당 활동만큼은 꾸준히 긴 시간 동안 이어서 하자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한대로 거의 1년이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희망하는 진로에 다다른 그 진로로 가게 된 이후에도 꼭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힙니다.

○ 서울대학교 안 ○ 규

2025년 여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법률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적 관심을 실제 경험과 연결할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고, 번역-공약조사-법정모니터링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수행한 헌법 번역 활동은 제가 처음으로 접한 번역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의미와 그 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했기에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페루와 세르비아 헌법을 번역하면서 낯선 법률 용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헌법

은 사회가 바라는 가치와 제도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었고,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의 다양성과 비교법적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는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이자 가장 쉽지 않았던 활동이었습니다.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이를 직접 공개하지 않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공약의 수가 훨씬 많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약 이행 조사가 단순한 수치 작업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감시 활동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형사 법정만 보았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전개는 없었지만, 판사·검사·변호사 등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정의 실현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만 들을 때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 입장을 듣고 나니 사건의 양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사법 정의는 다양한 관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구현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의 모든 활동을 통해,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의정 감시와 사법 모니터링을 하며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시민이 이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법과 제도가 더욱 건강하게 작동하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활동인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한층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일반 안 ○ 현

여름학기의 끝자락에서 이번 학기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던 시기였음을 느낍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학기였지만, 매 활동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과 행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활동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사회의 여러 문제와 법의 역할을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봉사에서 가장 설렘이었던 활동은 단연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평소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접하던 법정을 직접 찾아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경험은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음주운전, 사기 등 다양한 사건을 방청하면서, 재판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치열한 과정임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전과자가 재범으로 다시 법정에서 모습을 보며,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실감했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범죄가 결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법정 모니터링은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번역 활동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국의 정치 체제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 문서를 통해 그 나라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주민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파라과이 헌법, 상·하원으로 구성된 폴란드 헌법,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포르투갈 헌법, 그리고 균주제를 기반으로 한 카타르 헌법까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제도 속에서 헌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법'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범죄, 공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총 네 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건도 있었는데, 법과 정의가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조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한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치 분석을 넘어 공약의 질적 이행 여부를 살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약 200여 건의 공약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지방행정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총 네 가지 활동을 경험하며 공통적으로 깨달은 점은, 법과 행정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판결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헌법 번역에서는 각국이 법으로 담아낸 가치와 지향점을,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절차와 정의의 균형을, 공약 조사에서는 행정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봉사로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양대학교 안 ○ 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세 번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이 많고 그 안에서 얻어가는 의미도 크다는 것을 깨달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공약점검 및 이행률조사가 필수 활동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찾아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뿐더러, 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거라고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배정된 지역이 가본적도 없고, 쉽게 접해본 적도 없는 강원도 고성과 강릉이라 더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5대 공약 중 어떤 것이 세부적인 몇 번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건지 찾기도 어려웠고, 그 공약의 진행 과정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도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었지만, 끝까지 내가 작성한 내용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봉사를 진행하면서 고성과 강릉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원도 지역의 정책과 관련 정보를 수도권에 사는 제가 쉽게 접할 일이 없는 것도 맞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이 정책과 연관되어 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 가을학기 봉사활동 때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그 진행사항에 대해 모르면 부분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는 소감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약점검 및 이행률조사 활동에서는 나아가 그러한 넓은 공약을 어떻게 각 지자체에서 구체화하여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약은 발표되었으나 이행이 취소된 경우, 진행사항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는 공약 등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소식을 기사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고, 지자체의 정책 보고서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행이 취소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공약들이 지자체의 주요 추진 사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장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뽑아준 지자체

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능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에도 판결문리서치 활동으로 채웠습니다. 이번 학기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 학부에서 형법학 수업을 들었고, 이번 학기에는 민사법 중 물권법에 대한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형사 판결문은 지난 학기 배운 내용과 관련된 것을, 민사 판결문은 물권법과 연관된 것을 골라 진행했습니다. 5개의 판결문 중 민사 판결 2개를 리서치 했는데, 먼저 모니터링 한 판례는 임대차 판결문이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법한 사건이었고, 1학년 이후로는 주택임대차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물권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이번학기를 대비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법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민사 판결문은 지상권과 관련된 판결문이었습니다. 지상권이야말로 주택 매매나 임대차 등 내용보다 이해가 어려웠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판결문을 통해 관련 개념과 법리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상권자가 한국전력공사로 공기업이었는데, 1990년대라는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자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보증액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총 3건을 리서치했는데, 모두 학부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 다시금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문의 경우 검사의 기소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만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 판결문의 경우 균형법이 적용된 사건이었는데, 일반 형법과 다른 균형법만의 목적이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고사 사건은 꽤 유명한 판결문이었는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직업적 윤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말과 행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까지 총 세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 학기 봉사를 진행할 때마다, 필수 활동과 선택 활동을 불문하고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목표로 하는 직업군에 대해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 선택활동으로는 판결문리서치 활동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이번 학기에는 꼭 진행해보고 싶어 신청했었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 법정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염 ○ 인

대학에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방학을 함께 한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마쳤다.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어 어떤 것을 해볼지 고민하다 판결문 리서치, 법정모니터링과 필수활동인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틀어서 첫번째로 시작한 활동이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배우는 것이 많을 것 같아 도전해보았다. 총 다섯 개의 사건을 1심부터 3심까지 쟁점과 판결요지를 직접 정리하고, 판결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건을 담당했던 법조인들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나는 사건 유형이 각각 다른 다섯 가지 사건을 리서치하면서, 평소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가 변해가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때는 법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의아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앞으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는 모습이 보여 감동을 받았다. 판결문을 하나하나 읽고 쟁점과 판결요

지를 정리하며 법조인들의 판단 과정을 살펴보는 동안, 법이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판결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일반인의 상식과 법리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체감했고, 앞으로 법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사고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법조인의 판단이 단순히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다. 처음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흥미를 붙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단순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각급 법원이 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사건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다.

두 번째 활동은 민선 8기 공약이행률 조사였다. 나는 두 명의 구청장을 맡아 그들의 선거 공약이 얼마나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공약에 집중하지만, 정작 당선 이후에는 유권자들이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조사 결과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 긍정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국민으로서 대표자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독려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을 반성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은 나에게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환기시켜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중학생 때 민사사건을 방청한 이후로 법정에 가는 건 처음이라 처음에는 긴장되고 무서웠다. 그리고 단순한 재판 방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등 법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목적이란 어색하기도 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엄숙했고, 재판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법정이라는 곳을 가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던 드라마, 하물며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회에서 진행하는 모의법정의 모습과 실제 법정엔 너무 달랐다. 내가 상상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조금은 실망하기도 했지만, 법조인의 현실을 더 가까이서 본 계기가 되어 동기 부여가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크게 느낀 점은 공개재판주의의 실질적 의미였다. 헌법에 명시된 공개재판주의는 국민이 재판을 감시하고 사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방청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정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이 엄숙함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더 쉽게 재판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함을 제고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번 안 되는 모니터링이었지만,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발언, 재심 등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방학 동안 위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과 사회,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각 활동을 통해 법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미래를 향한 고민이 많은 시기에 있는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 조선대학교 이 ○ 창

여름방학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 늦어진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진행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방학 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이 생겨

봉사활동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막바지나 되어 겨우 떠올린 후에 급하게 모든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쏟아 부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함은 느껴졌는지 담당자분께서도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라는 조언도 메일에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번역봉사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말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다듬는 것이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어의 뜻과 문장 구조를 보는 것도 시간이 꽤 소요되었지만, 단어가 다의어라 적당한 표현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장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법률용어에 걸맞게 다듬는 작업이 특히 힘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법률용어의 영어 표현, 그 나라의 지리, 종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용어 등을 보면서 번역 전에 진행하는 그 나라의 특징을 보는 것이 법률 번역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강제추행죄에 성립에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타 판결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소사실과 법률 적용의 과정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이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수월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그만큼 용어 정리 단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어나간 탓에 복잡한 용어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려 조금 난처하긴 하였지만 이번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전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보다 사례를 이해한 정도가 꽤 높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여름학기 봉사활동의 경우, 가장 아쉬운 점은 시간에 쫓겼다는 점입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 기간이었던 지라 여유를 두고 깊게 파고들 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촉박한 상황에서도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반성과 개선을 통해 앞으로 발전된 자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의 방향성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탓에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필수활동인 공약이행률조사, 선택활동으로 진행한 번역봉사와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자택에서만 진행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자택에서 편하게 진행한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법정모니터링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개인의 일정상 여유가 없어 자택에서 가능한 봉사활동만 진행한 것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 추후 봉사활동을 할 기회와 여유가 생긴다면 또 하고 싶은 활동의 목록을 미리 확보한 셈 치면 너무 아쉽지만 한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좋은 활동을 통해 뿌듯한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도움과 조언을 주신 모든 담당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이 ○ 태

올해 여름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활동은 저의 첫 법률 관련 활동이었고, 또 대학에서 몇 번 해보지 못한 봉사활동이기도 했어서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살을 하던 중 점차 사회를 옹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법조인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법률봉사가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법정치봉사단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회에서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으며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정치학과 외교학을 전공하며 경제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정치인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언론의 보도 실태 및 법조계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와 공약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활동의 내용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판결문리서치 1건, 3일 간 13개 재판부의 법정모니터링, 사

설분석 언론모니터링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의 경우 대구 북구와 동구 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했는데 생각보다 민선8기 지자체장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잘 이행되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활동이 길게 보면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활동할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보람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저 외에도 많은 봉사단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지자체장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들어 저의 시간을 써서 지자체의 활동을 지켜본 경험은 새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재산을 취득한 소외인의 아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법조인을 지망하고 있지만 판결문을 본 적도 없고 방법도 몰라 재판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지, 수용 가능한 판결인지 생각해보니 조금 더 저의 일상에 법이 가까이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법조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판결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좋은 판결을 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수많은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며 법의 세계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와 가까이 있으며, 또 법에 의해 작동하는 재판의 구성원과 재판 또한 인간적인 행위구나 느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발언과 그 앞에 놓인 수많은 서류들, 표정들을 보면서 법조인 자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된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다양한 언론사들의 사실을 분석하며 다루는 이슈들에 대한 태도와 관점 차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언론들을 비교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법률봉사와 함께 보낼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언론, 법조 등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며 효능감을 느꼈고, 개인적인 법조인의 꿈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 서강대학교 이 ○ 아

저는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번역 봉사,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활동을 이어가면서 제 손에 거친 작은 결과물들이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사회적 책임과 공익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번역 봉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신중함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문서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적인 표현과 달리 작은 뉘앙스 차이에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절한 우리말 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가진 언어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동시에 법률 번역의 무게와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를 옮기는 과정에도 신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점이 제게 큰 의미로 남습니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은 저에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

집하고 수치를 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작업 하나하나가 곧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공약 하나의 이행 여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행정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이 단순히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정의의 기준이 담겨 있었고, 이를 읽고 정리하면서 법의 역할과 한계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하나하나가 개인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데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가지는 무게감을 실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법률이 단순한 학문이나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살아 있는 장치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법률과 사회가 맞닿아 있는 지점을 몸소 체험했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지향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역할에 불과했지만, 제가 맡은 작업이 사회적 감시와 권익 보호라는 큰 흐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제가 사회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책임감과 성찰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봉사활동에서 배운 자세를 잊지 않고, 사회적 약속과 정의를 지켜내는 일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이 ○ 수

저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봉사자로서 소양을 기르고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법이 사회적 가치와 역사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적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체험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재판이 단순히 법의 텍스트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법이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며 균형을 찾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세 건의 사건을 분석하는 동안 두 사건은 3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파기환송과 재상고가 이어져 4심, 5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각 판단 속에는 세밀하고 깊은 신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깊은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시위로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된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판결문 속에서 동물권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려는 시각이 드러났던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법이 끊임없이 가치들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며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살아 있는 체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어진 헌법 번역 봉사에서도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헌법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뉘앙스 차이가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르완다 헌법을 번역하면서,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갈등과 대학살이라는 아픈 역사가 헌법 곳곳에 스며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픈 역사를 믿고 가차차 법정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모색한 흔적은 한 나라의 헌법이 집단적 기억이자 미래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일제강점기와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확립해온 사회적 기억이 담겨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 봉사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모두 법이 사회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활동

을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자가 되어 보는 경험은, 앞으로 제가 '모두를 잇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법과 제도를 둘러싼 시민적 감시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의 공약은 선언적 구호 정도로만 여겼으나, 실제 조사를 통해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연되거나 무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의 성패는 정치인의 의지뿐 아니라 국가 재정, 국제정세, 사회적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공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시민이 제도의 작동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결국 시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만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장의 태도, 피고인의 진술, 방청석의 긴장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판을 두 차례 모니터링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재판장께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질타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죄란 무엇인가', '법은 어떠한 태도로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마주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라는 제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 존재하며,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돌아와서 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네 가지 활동이 각각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여정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 봉사를 통해 법의 정신과 역사적 맥락을 바라보았고, 공약 이행을 조사를 통해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시민적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법을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책임을 담아내고 실현하는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탐구하고자 합니다. 법의 정신과 사회적 의미를 잊지 않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켜가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법학도로서의 길을 더욱 성찰하게 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이 ○ 찬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세번째 봉사활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봄학기 봉사활동을 연장에 여름학기 봉사활동 기간까지 하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그리고 선택 봉사활동이었던 마이크로네시아 헌법 번역, 모로코 헌법 번역, 2024도12689 판결문 리서치, 2022도2071 판결문리서치입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법과 정치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비슷한 나이대의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전 봉사자의 미흡한 선조사로 인해 난관을 겪기도 하였지만, 전체 공약과 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국가의 헌법 번역은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미국의 법만을 번역해봤었는데, 마이크로네시아와 모로코라는, 다소 생소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역 활동을 진행하면서 두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함께 조사하고, 이에 맞추어 법조문의 특정 문언을 번역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모로코의 경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배경으로 인해 법 자체도 미국법보다는 프랑스법에 가까웠는데, 보다 완성도

있는 번역을 위해 프랑스의 법체계 혹은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법률적 표현들도 조사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법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모두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도12689의 제목은 '2차적 증거인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으로, 택시에서 분실 신고로 처리된 휴대폰을 경찰관이 탐색하던 중 마약 관련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해 이를 토대로 마약 범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휴대폰과 내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 진술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2도2071의 제목은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공소외인인 쌍둥이 자매의 부를 통해 압수되어 참여권 보장도 부를 통해 이루어진 형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라 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며 참여권도 직접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위법 사실 외에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었다. 두 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함으로써, 형사 사건에서의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입법 시에 다방면에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임 ○ 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제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법률 문서 영어 번역,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법률 실무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자료를 번역하면서 법률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국제 법률 업무에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복잡한 법률 판결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비판적 사고와 법률 해석 능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조사 지원을 통해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제로 매우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실무적인 통찰과 경험들은 향후 학업과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봉사활동은 법률 공부에 대한 제 열정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법조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굳건히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더욱더 정진하여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경험을 의미 있게 살려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법률지식을 쌓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서강대학교 임 ○ 서

2025년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조사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법률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깊이 체감하였다.

이번 학기에 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과 저작권법상 복제, 인용 또는 공정이용 관련 손해배상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에 대한 인용 또는 배척 이유, 항소와 상고 사유와 및 최종 판결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며, 사건이 지방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이 구체적 근거와 타당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판결내리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가 직접 판결한다면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인지, 혹은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인지 논증적으로 서술한 활동이었다. 해당 사건에 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판결 구조의 설득력을 보완하거나 비판하면서,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재량 범위에 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저작권법 관련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타당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법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다. 사건의 핵심 쟁점 및 근거 서술이 생각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임을 깨닫고, 법조인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다.

이외에도 나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헌법을 번역하며 각국의 법체계와 헌법 가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접할 수 있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헌법 속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헌법이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사회의 근본을 규정하는 규범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조용의 경기도 부천시장의 공약 점검 및 이행을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와 행정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공약 이행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평가가 곧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점검하는 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는 민주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법률이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판례, 헌법, 정책을 통해 실제 시민의 권리와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체감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성신여자대학교 임 ○ 정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게 되면서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진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여름학기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고, 성실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활동에 임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값지고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큰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전공 공부를 하며 판례를 읽고 분석한 경험은 있었지만, 그저 수동적인 학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관심 있는 분야의 판례를 직접 선정하고, 사실관계 및 쟁점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를 능동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긴 판결문 속에서도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또한 판례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며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사회와 법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리하면서 법률적 언어에 친숙해질 수 있었던 점도 뜻깊었습니다.

번역 봉사는 저에게 있어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을 한국어로 옮기는 단순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 사회구조,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가진 의미가 법률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국가의 헌법을 접하며 그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직접 번역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법은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앞으로 국제적 시각을 가진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다짐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공약이행률 조사는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한 명의 의원이 100여 개가 넘는 공약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방대한 양의 공약과 기사 등의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조사와 기록을 이어가다 보니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일이 단순히 수치를 매기는 활동이 아니라, 정치가 시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 역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시민의식을 강하게 체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회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여름학기의 필수 활동은 아니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부터 반드시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법조인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법정에서는 하루에 한 재판부당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 그로 인해 재판 지연이 잦은 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은 점 등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이 단순히 논리, 법리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환경,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이나 강의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문리서치나 번역 활동을 할 때에는 생소한 법률 용어와 낯선 문장이 많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데 몇 차례의 수정과 검토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적 사고력과 끈기를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얻은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북대학교 장 ○ 현

이번 봉사활동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하는 3번째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지난 학기 교환학생을 마치고 난 뒤 다음 학기 준비를 하며 방학기간 동안 나름의 알찬 활동을 하게 된 것에 상당히 보람차고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이전의 활동과 같이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필수 활동인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 등과 함께 지난 학기 타지에 있어 하지 못했던 법정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기뻐했다.

특히 이번에는 적절한 상황이 마련되어 처음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판결의 선고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이번 법정 모니터링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러한 선고를 직접 경험하니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여타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로 좋지만, 더욱 끈기와 꾸준함이 요구되는 분야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으로 3번의 봉사활동을 마쳤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물론, 학기 중에는 봉사활동에 많은 힘을 쏟지 못해 병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과 같이 방학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학을 보낼 수 있고 동시에 법조인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유지하여 나의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인하대학교 장 ○ 리

이번 2025년도 여름학기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법률적 시각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법률을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우연한 계기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헌법 번역 봉사활동,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비롯하여 필수활동인 공약 이행을 조사까지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법률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률과 그 활용에 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는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봉사, 공약 이행을 조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 봉사의 경우 저는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를 다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판결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법률 용어로 쓰여져 있어 익숙하지 않은 1~3심까지의 판결 전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읽다 보니,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풀어써 보는 과정을 통해 법리적 해석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헌법 번역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배우고 각국의 헌법이 정치, 문화 및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 스리랑카, 파라과이, 페루의 헌법 번역 봉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서 해당 나라의 정치 체계와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한국 헌법과는 다른 점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각국의 법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이번 여름학기 필수활동인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조사였습니다. 공약 이행을 조사 활동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많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와 공약 추진 자료를 비교하며 실질적 이행을 조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은 정치적 책임을 비롯한 시민의 알 권리에 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저에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을 비롯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 가지며 참여해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뜻깊은 활동을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장 ○ 서

2024년 여름학기과 겨울학기에 소비자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한 이후 이번 2025년 여름학기에 세 번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설 분석), 민선8기 공약이행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자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평소 국가폭력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건과 관련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현대사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국가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마항쟁 당시 국가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인 경향·서울·한겨레신문, 국민·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일보에 일주일 간 게재된 사설들을 전부 정리하여 분류하고 비교·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넷째 주에 게재된 148개의 사설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게재한 인사시스템 문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미 관세 협상, 대북 라디오 송출 중단 등에 대한 사설들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하며 뉴스나 기사로 여러 번 접했던 이슈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며 다양한 공약사항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지금 이번 여름학기에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면, 단순히 법 그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까지 기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봉사활동을 하고 나니 점점 봉사활동에 익숙해지고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이슈들이나 판례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2025 여름학기에는 3가지 활동만을 진행하였지만, 다음번 봉사활동 때에는 법정모니터링이나 번역봉사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전 ○ 인

여름별이 쓰여지던 시간이 어느새 9월을 알리고, 2025년 여름학기 기간도 끝에 다다랐다. 이번 학기는 내게 있어서 법률연맹에서 활동한 두 번째 학기로,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곳에서라면 하지 못했을 특별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저번 봄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번역봉사였다. 저번 학기까지 합치면 총 7개국의 헌법 일부를 한국어로 옮긴 셈이 된다. 이에 슬슬 단어와 표현이 꽤나 익숙해질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를 번역할 때에는 신중을 쏟고 있다. 특히 라틴어 등 고어(古語)에 비롯한 표현들은 원래 언어에서의 본래 의미까지 조사한다. 시간이 지나며, 더욱이 영어 및 관련어의 모어 화자가 아닌 내게 있어서, 그것이 본래 법률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미가 희미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 조문이 되고, 나아가서는 법령 자체를 이루는 것이기에, 법해석의 기준점이 되는 법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철사리 넘기기는 어렵게 느껴지는 듯하다. 요는, 번역의 질과 번역가의 성장을 위해서도, 미시적으로 원문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감히 말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어서, 판결문 리서치에도 열과 성을 다해 참여했다. 으레 판결문이라 하면 길고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지난 학기의 나 또한 다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학기 연속으로 판결문을 분석해온 지금이라면, 사실 판결문은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짜여진 하나의 논설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문의 이 문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건에 필요한 규정이 법문에 없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내가 분석한 두 판결문에서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이들은 법 적용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법문은 결국 텍스트이고, 텍스트는 언어라는 불완전한 매체에 기반한다. 그렇다면 이는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각 해석자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논증해야 한다. 판결문이란 그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임을 이제금 느꼈다.

상기 활동들 외에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조사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한 간략함을 감수하고 이야기하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공약이라는 하나의 약속이 꾸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뜻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른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도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임과 동시에 영광이다. 각각의 활동에 있어 다량하신 가운데에도 진심어린 조언과 피드백을 아끼지 않아주신 법률연맹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금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 스스로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이번 학기의 소감문을 마무리짓는다.

○ 성균관대학교 정 ○ 영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에 매력을 느낀 뒤 여러 관련 활동을

찾다가 지인을 통해 접하게 되어 즉시 신청한 활동이다.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공약점검 및 이행률 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은 이름부터 매우 유익해 보였고, 직접 활동에 참여해 보니 내가 얻어갈 수 있었던 건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 한 학기 동안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이런 유익한 활동도 있구나’라는 소감의 연속이었다.

나는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주력했다. 활동 기간 중 4회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애당초 법학에 매력을 느낀 계기가 판결문을 읽으면서였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법적 용어로 서술하고, 법적 논리로 사안을 풀어내는 과정이 나타난 판결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흥미로웠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그러한 판결문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낼 기회를 주었다.

먼저 법적 사고의 경로를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재판부가 원고 또는 피고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치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이 있었다. 가령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또는 발생하였더라도 피해가 감소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는 판결문의 논리 전개는 매우 흥미로웠다. 구체적인 법적 공식을 통해 일상 사안을 풀이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 역시 가치 있는 경험이였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원을 방문하여 형사재판 두 건을 모니터링하였다. 재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나, 사안의 복잡성은 그보다 훨씬 컸다. 위기에도 힘들 정도의 길고 복잡한 공소사실, 골도 없이 나열되는 증거들 등, 법조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큰 능력이 요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아가 법적 공방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중 어느 하나도 가버리여길 수 없다는 사실은 법조인의 무거운 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기에 충분했다. 한편으로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더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약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은 민주주의가 왜 현존하는 체제 중 가장 우수한지 알 수 있는 활동이었다. 흔히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은 ‘허황되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등의 부정적 묘사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내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지자체장들의 공약이행 실태는 꽤 우수했다. 다수의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임기 내 이행 완료 예정이었고,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의 변심이 아닌 인허가의 어려움, 재정적 한계 등 현실적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 또 공약들은 대부분 서민의 삶과 밀접한 것들이었다. 센터 건립, 문화시설 확충, 돌봄시설 마련 등의 우리 삶과 밀접한 공약들을 보니 국민주권의 행사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사실이 와닿았다.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된 뒤로 여러 공부를 해보았다. 형법, 민법, 행정법, 헌법 등을 알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수업을 듣기도 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있다.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였으나 법학의 실용적 측면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접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책과 강의를 통해 공부하던 법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결문을 분석하며 알 수 있었다.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약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혼자 공부를 지속했다면 해볼 수 없었을 경험들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겪게 되었다.

법적 사고와 법적 논리는 다양성을 통해 갖춰진다고 믿는다. 책상에서 책을 펴고 진행하는 학습은 그야말로 법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기본도 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풍부한 경험 없이는 높은 완성도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바로 그 다양한 접근과 풍부한 경험을 가능케 하였다. 다음 학기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정 ○ 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주제와 문제들을 접하며 시야를 넓히고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성격이 달랐지만 모두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진 한계와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키우고 앞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중간점검 조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상북도 의성군과 청도군 군수의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지역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 유입 정책, 귀농귀촌 장려 사업,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행정적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제도를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생소한 나라였기에,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을 함께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말리아 헌법의 경우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국가 재건 과정의 맥락이 담겨 있었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헌법은 영연방체제의 흔적과 독립 이후의 자주적 발전을 향한 의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번역을 통해 언어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제도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인정은 여전히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가 국제적 기준과 인권적 관점을 반영하려 노력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사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인도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 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또한 법학적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접목하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었지만, 모두가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문제를 점검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고, 헌법 번역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각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배웠으며, 난민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험들이 모여 제 시야를 넓히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워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정 ○ 령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가벼운 생각만 가지고 있던 저에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처음으로 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 기회였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던 터라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활동들을 보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라고 생각되는 번역봉사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몇 번 작업

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며 외국의 법률을 접하게 되면서, 법이 국가의 상황, 문화, 역사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판결문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찾은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용어도 낯설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몇 건을 읽고 정리하다 보니 판결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쟁점을 파악하는 감도 조금씩 생기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 속에서 법의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며, 막연하던 꿈이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수 활동인 공약 이행을 조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느낌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공식 자료와 보도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선거 공약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와 법, 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왜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막연한 동경이 아닌, 실제로 어떤 일인지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활동에 참여하며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국민대학교 조 ○ 승

이번 학기에 세 가지 봉사활동에 지원하였다. 첫 번째로 지원한 봉사는 헌법 영한 번역 봉사였다. 번역 봉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타 언어보다 영어로 된 문서를 번역하기에 비교적 수월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헌법 중 일부를 맡아 번역하게 되었는데, 처음 접해보는 문장 형식에 어려움 겪었다. 특히 법조문에 선택되는 단어나 표현이 일상에서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보통은 조동사 'should'를 쓸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장에서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에서도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과 유사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 헌법의 1조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헌법 조문 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토대를 이루는 법이지만만큼 자유국가의 이념을 보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번 학기 봉사활동 필수 활동인 공약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을 신청하였다. '나의 정치 참여'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평소 정치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 선거기간이 다가올 때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볼 뿐 그 후에 선출된 후보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 추후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관심 밖의 일들이었다. 한 지역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검토하면서 나름의 평가를 해보는 활동을 통해 추상적이었던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 혹은 죽은 공약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많은 수의 공약을 찾아보면서 해당 지역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공약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사했던 지역은 비록 몇몇 공약들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금씩이라도 공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한 국민의 유권 행사가 어떠한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싶은 판결문을 정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는데, 하나의 사안에서 각 심급에 따라, 판사에 따라 같은 주장과 논리라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였다. 이는 ‘법’이란 객관적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적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법에는 획일적 기준이 없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각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 이유를 보면서 어떤 논리로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이론적 측면이 아닌 실무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조 ○ 영

2025년 여름학기에는 헌법 번역봉사,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의 주제와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법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실과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외국 헌법 번역봉사는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여러

국가의 헌법 문서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각 조항은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제도를 반영하고 있었기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생소한 제도나 표현을 번역할 때에는 맥락적 의미에서 용어 선택과 문장 구조가 지니는 무게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드러난 각국 헌법의 특징을 비교하며 헌법이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최충규 의원과 대전광역시 동구의 박희조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십 개에 이르는 공약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식 보고서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약의 성과를 ‘이행’이나 ‘미이행’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추진 상황과 성과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이행 완료로 분류되었으나 실제로는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공식적으로는 이행 중으로 분류되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면서 공약은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핵심 핵심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판결문의 주요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상법 관련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봄에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상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법적 성격, 그리고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급심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근거로 보증채무의 효력을 부인하였으나,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이 본질적으로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체결한 별도의 약정은 그 효력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이 사적 계약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경영진 개인의 책임 범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판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조문의 문언 해석뿐 아니라, 판례가 축적해온 법리와 판결이 놓인 사회적·경제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판결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은 투자계약, 주주평등, 경영진의 책임 등 상법 전반의 주요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논점을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다. 번역봉사에서는 각국의 헌법

을 비교하며 헌법이 지닌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공약이행률 조사를 통해서도 정책 실행이 지닌 복잡성과 행정적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리가 실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세 활동 모두 법과 제도를 실제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봉사에 더욱 성실히 참여하며 배우고자 한다.

○ 인하대학교 주 ○ 화

이번 2025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하였다.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를 맡게 되었는데, 각각 조사해야 하는 공약이 대략 100개로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내가 본 공약 홍보집에서는 큰 주제로는 5가지, 세부적으로 많아도 약 20개 정도였는데, 총 다 합하여 보니 두 지자체장 모두 공약이 약 100가지 정도여서 내가 너무 공약에 무지했나 싶어 부끄러웠다. 물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공약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못했다. 사실 도지사에 대한 것도 잘 몰랐는데, 도지사(道知事)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광역자치단체장)를 가리킨다.

지난 학기에 실시했던 군수와 달리 도 단위의 공약이라 공약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이미 완료된 공약과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공약이 대부분 많아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해당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젊은 인구 유출이 많아 이를 해결하려는 내용의 공약이 많았다. 또한 관광 유치와 현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려는 공약 역시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예를 들어 도로 신설이나 새로운 건축물 형성 같은 것에는 확실히 예산 편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지방에 일 자리를 생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를 위해 교통을 편리하게 구축하려고 공항이나 도로 정비를 하고 대기업이 지방에 들어오도록 예산을 편성 받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약 조사를 통해 각 지역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문제 해결 사이의 고정액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활동이었다.

한편으로는 약 10시간 정도 소요되어 조사하여야 할 수 있는 공약 이행률이었는데, 관심이 없거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알기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별로 어떤 공약이 잘 이행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공약이 있는지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정부24 채널을 통해 공약이행률을 볼 수 있다거나, 정기적으로 세대에게 안내문이 배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름학기에는 필수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행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질 때 다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정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지난 학기의 경험상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사회의 모습을 알고 법 관련 꿈을 키우게 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봉사활동이 있음을 알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다.

○ 서울대학교 지 ○ 현

이번 2025년 여름학기에는 필수 봉사활동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와 대법원 판결문리서치 활동 다섯 차례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접한 판결들은 교통사고, 특허,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 소년법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법은 어떻게 사실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판결문을 읽고 요약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법리 이해를 넘어, 우리 사법제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면허 운전 사건(2021도17733)에서 '사건의 실제 파악'과 '검사의 입증책임' 사이에서 법원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에 관련 문구가 있었음에도 그것만으로는 '인지했다'고 단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태도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이 검사의 입증책임과 무죄추정 원칙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의심을 배제하는 엄격한 증명 구조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선임을 알 수 있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 사건(2021후11070)과 CBD 화장품 사건(2022두60776)에서는 법과 과학기술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판례에서는 실험실에서 새롭게 합성된 약물은 약동학적 특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때에는 신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 문헌에 따르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여전히 기존과 동일하므로 신물질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물질 PEG 부착 등 단순한 변형정도까지 신물질로 인정한다면, 특허권 존속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약용의 우려가 있음을 대법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법은 특허법의 목적인 신약 개발 장려와 공중 보건 보호의 균형 사이를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부 송치 재항고 사건(2024모398)은 소년법에서의 교화 이념과 사회의 엄정한 처벌 사이의 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소년의 교화에 더 무게를 두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청소년이었던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 중대한 마약 관련 사건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송치 결정을 파기했다.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우리 사법제도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교화라는 가치를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단순히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량조정 등 교화의 구체적 방식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이 처벌과 재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위 판결들을 통해서 법은 단지 문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법원은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과학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려 노력하고, 때로는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며, 때로는 교화와 응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민한다. 이번 학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은 고정된 문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율하는 살아 있는 제도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 국민대학교 진 ○ 정

이번 학기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비판적 사고를 깊이 있게 체득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은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집을 꼼꼼히 읽으며 봉사가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실천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티회신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실제 봉사활동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모든 활동에는 계획성과 성실성이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이는 앞으로 제가 어떤 분야에서든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자세를 갖추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조사 활동은 지방 행정과 정책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안병구 경상남도 밀양시와 박동식 경상남도 사천시의 공약과 실제 이행 상황을 조사하며, 공약이 단순히 선거를 위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임을 실감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공약의 목표, 실행 계획, 그리고 달성도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은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정확을 분석하는 능력과 세심한 조사력,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비판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여름학기 언론 모니터링 과제였던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보도 경향 분석'은 국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두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분석하며,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방식과 강조점이 언론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는 단순히 보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보도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언론이 선택하는 정보와 표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읽는 시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사건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학기의 모든 활동을 통틀어, 저는 지식이나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사회적 책임과 연결 지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조사에서는 정책 분석의 실무적 경험을,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에서는 시사적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를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와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역할을 실천하는 데에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천 ○ 정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재판관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고, 판결문을 정리하고, 선출직의 공약 이행 정도를 직접 조사하며 법관 및 공직자의 행위에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는 단지 법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대한민국 재판정이 공정한 재판관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변호인이 없는 재판당사자를 위해 법관이 차분히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관이 재판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법정에서 권리 보호가 직접 이뤄지는 현장을 보니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를 보면서, 법적 절차의 정교함과 체계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경험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 역시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시스템과 국가 운영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확한 헌법이 없는 대신 "기본법"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규정하고,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과 실질적 통치를 구현하는 의회가 국가를 규정한다는 점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시민의 기본권보호와 통치 구조를 헌법의 역할을 하는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공통적 차이점을 파악하며 이스라엘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법과 통치 구조 및 정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통해 법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관은 때로는 법적인 안정성에, 때로는 현실의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사안별로 판단을 다르게 하면서도,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성 동반자 역시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문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에서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는 법원의 역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는 법 해석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의 공약 이행 정도를 조사하면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임을 느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예산 부족이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미이행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을 알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공약 실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적 절차와 법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법조인이라는 저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통해 법관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실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경험한 공정한 재판 절차와 권리 보호의 과정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재판을 통해 법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법적 절차의 정교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며 각국의 법과 정치체제를 비교한 경험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법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닌, 사회 정의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기초임을 깨달았고, 법관과 법적 절차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최 ○ 준

소비자법률연맹에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및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을 조사는 단순한 기록 정리를 넘어서, 법과 행정이 국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총 5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은 다양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부당 이득금 반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내 전공과 관련있는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난 판결을 위주로 다루었다. 단순히 사건 개요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원고와 피고는 각각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법원은 어떤 이유로 판결을 내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몇몇 판결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분석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과 현실의 법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히 사회적으로 문제 시되는 행위였지만, 현행법상 이를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였었다. 현재는 해당 행위는 입법과 법개정으로 처벌가능하게 되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해당 행위를 규율할 법 조항이 없거나, 법적 정의를 모호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것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법개정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중략>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나 요약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작동하는 법과 행정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법를 리서치에서는 '정의'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지자체 공약 조사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관리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법과 행정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작동하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 법률이나 정책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나의 관심사와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충북대학교 허 ○ 성

작년부터 1년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봄학기에는 필수활동을 하지 못해 봉사활동을 이월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과 여름 학기를 거치며 진행한 활동들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민선 8기 공약점검 및 이행을 조사였습니다. 봄학기 필수 봉사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이었는데, 두 학기의 활동이 연결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투표로 뽑힌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컸는데, 실제로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해보니 현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구청장들, 시장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기사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고 부정적인 기사 위주로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택에서 검색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에게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사람에게는 별이 되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학기부터 여름학기까지 지속적으로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하며 다양한 판례가 참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과 비슷한 내용임에도 사실관계가 다양하기에 법조인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수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판례들을 보며 판결문에 익숙해지고 사법체계 감시에 일조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차다고 느껴집니다.

2025년도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 모여 활동한다면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더욱 값지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홍 ○ 희

지난 봄학기에 이어 두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고, 민선 8기 공약이행을 조사를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여름학기 동안 스리랑카, 소말리아, 남수단, 그리고 세인트루시아의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헌법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번역을 하며 mutatis mutandis(필요한 상황에 따라 수정하며) 와 같이 새로운 라틴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를 포함해 약 10개국의 헌법을 번역하였음에도, 아직 새롭게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의 헌법 번역을 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에 비해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지위 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남수단의 헌법은 여성 대표를 최소 25%까지 의무로 규정하는 적극적 조치를 명시한 반면,

소말리아 헌법은 의회 및 정부 주요 직위에 여성 30% 확보를 목표로 하는 쿼터 방식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성 차별 금지와 여성 복지 및 권익 증진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긴 하나, 구체적인 대표성 목표나 쿼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이 시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민선 8기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며 부여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사 공부를 한 이후로 옛 삼국시대의 도읍지였던 경주나, 부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여의 새로운 공약이나 이행을 측면에서 부여만의 색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올해 경주에서 APEC을 개최하는 것처럼 부여 또한 더 다양한 자원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00314)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택시기사님들과 택시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전 학기에 진행했던 케이스들과 다르게, 3심에서 판결이 바뀐 대법원의 결정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함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이나 노동 인권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홍 ○ 진

저번 봄학기에 이어서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한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번 학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선8기지사채장 공약 이행도 평가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의 경우 저번 2차 조사의 시점 이후 현재 어떻게 공약이 추가로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이행이 미흡한 공약들 역시 이전보다 더 많이 논의되거나, 혹은 지역 상황에 맞춰 변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음을 조사 중에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지방 자치에 대해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 역시 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헌법을 번역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용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르완다, 스리랑카 등 민족 간의 내전 혹은 갈등이 있었던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이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다양성과 그 사이 갈등의 치유를 헌법에서 다루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베트남의 헌법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확연히 다른 국가의 헌법 역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정치, 경제적 특징을 가진 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헌법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다가와 번역 봉사를 하면서 매우 흥미로웠고, 각 국가의 기틀을 다루는 헌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의 경우, 저번 학기의 경우에는 법정이라는 생소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다면,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법정에 들어가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의 경우 재심 사건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는데, 글로는 와닿지 않았던 재심 사건의 특징과 공판 절차를 직접 방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해서 몸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의미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저의 법적, 정치적 지식이 늘

어난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저의 내면적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이뤄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홍 ○ 은

2025년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로는 헌법 번역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몰타,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각국의 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의 분위기까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할 때마다 단순히 의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치 체계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봄학기 봉사에서 처음으로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활동은 각 지자체장이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식 자료, 언론 보도, 의회 회의록, 지방재정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약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공약은 애초에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선거 공약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공약 작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단위임을 체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봉사활동은 정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킨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책을 분석하고, 행정 실적을 평가하며,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저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한층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공공정보와 행정자료들을 접하며,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 · 선언되어 있음